

필드: 오랜만에 악기를 접하며

12학번 함경녕

처음에는 필드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 3월 달에 돈에 여유가 생겨서 트럼펫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사고 나서도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 연습실이 마땅치 않아서 등으로 핑계를 대면서 연습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악기를 관리하지 않아 악기도 녹슬어갔고 방 한구석에 먼지만 쌓여갔다. 트럼펫이란 악기를 처음 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남녕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이다. 거기서 지금 같이 필드를 하고 있는 대섭이를 만났고 처음으로 악기를 붙어봤다. 음악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나는 게이름부터 악보 보는 법 등등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매우 힘이 들었다. 그래도 악기를 부는 건 매우 재밌었다. 관악기라는 것은 대중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다. 호흡이 악기를 통해 전달되면 벨로 음이 파생이 된다. 호흡이 음악이 되는 악기다. 나는 그게 너무 매력이 있었고 신기했다. 아마도 내가 재미를 느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3년을 악기를 배웠고 졸업을 했다. 졸업한 후에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바빴고 여유가 없어서 악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 필드에 들어가고 다시 연습을 하면서 4년 만에 악기를 접했는데 예전만큼 기량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당황했다. 역시 악기는 연습한 만큼 나오는 법이었다. 그래도 조바심 내지 않고 연습하다보니 어느 정도 음역대가 나오

■ 필드: 필드 분과원 소감

기 시작했다. 밴드연습을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연습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 다양한 악기들과 합을 맞춰 연습하는 게 신기했다. 기타도 있었고 키보드도 있었다.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공연 때는 조금 실수를 해서 아쉽다. 다음에 공연할 기회가 있다면 연습을 평소에 착실히 해서 관객과 나 자신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연주를 들려주고 싶은 바람이다. 필드 멤버들 모두 너무 많이 고생했고 이번기회에 처음 악기를 접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열정에 매우 감명 받았던 시간들이었다.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트럼펫을 잡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고 뿌듯함도 느낀다. 연습도 많이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연주를 들어준 관객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